myFord

2017 MAY VOL. 9

HELLO SPRING!
LET'S GO CAMPING

자연을 찾아 떠나는 캠핑에 정해진 룰은 없다. 바람에 나뭇잎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
향긋한 풀 냄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연 그대로를 즐기면 된다.

Ford

Go Further

ROBERT DE NIRO and MCCAUL LOMBARDI, LA, 12:30pm

THE FULL CONVERSATION AT ZEGNA.COM #ZEGNACONVERSATIONS

THE ERA OF FORD SUV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도전과 모험, 탐험 정신이 깃든 SUV가 전성시대를 맞았다.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된 포드의 SUV는 산속 자갈길, 진흙, 경사, 물길 등 거친 지형도 문제없다.
묵직하게 가라앉으면서도 과감하게 속도를 올릴수록 여유가 넘친다.
오프로드뿐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주행성과 안정된 승차감으로 드라이빙의 한계를 넘어선다.

Go Further, 2017 포드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어디로든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계획과 함께 달려가는 길목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가족 그리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싱그러운 녹음을 바라보는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드자동차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가 평가한 '자율 주행 차량 전략 및 실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포드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비전을 통해 미래 이동성을 책임지는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율 주행차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고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드의 기업 슬로건인 'Go Further'와 같이, 더욱 전진하고 혁신적 솔루션을 발굴해 고객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2017년, 포드코리아도 더욱 전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포드코리아는 지난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도 지난겨울에 선보인 다이내믹 · 스마트 디젤 콤팩트 SUV '뉴 쿠가'를 비롯해 수입 대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인 포드 익스플로러, 몬데오, 토러스 그리고 머스탱 등을 기반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포드코리아는 전략적 라인업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나가는 데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AS와 네트워크 확대, 마케팅 활동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울산과 전주에 오픈한 서비스센터를 포함해 포드만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접근성 또한 더욱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포드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환경보호 후원 프로그램 '포드 그랜츠(Ford Grants)'를 비롯해 운전자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riving Skills For Life)', 포드코리아 임직원과 딜러사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의 달(Global Month of Caring)' 진행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임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유수불부(流水不腐)의 의미를 되새기며 항상 최상의 고객 만족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포드코리아 2017년을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myFord

2017 MAY VOL. 9

04 INTRO
THE ERA OF FORD SUV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된 포드의 SUV 시대가 펼쳐진다.

06 CEO MESSAGE
Go Further, 2017 **포드코리아!**

SPECIAL THEME

08 RUN WITH THE FORD
HELLO SPRING! LET'S GO CAMPING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2017 익스플로러와 캠핑을 떠났다.

20 GUIDE
뉴 쿠가와 떠난 차박 캠핑
뉴 쿠가와 함께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차박 캠핑'을 제안한다.

24 PLACE
HEALING IN THE GREEN
국내 이색적인 캠핑장 다섯 곳을 소개한다.

30 TASTY
OUTDOOR TABLE
요리 초보인 남자들도 뚝딱 만들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아웃도어 레시피

34 ABROAD
THE HEART OF CANADIAN ROCKIES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캐나다 재스퍼 국립공원으로 떠난 캠핑 여행

PLAY WITH FORD

40 NEW FORD LIFE
CITY OF TOMORROW
포드가 펼쳐나갈 미래 도시를 만나본다.

44 TECH
GUIDING LIGHT
눈부시게 발전한 헤드램프의 최첨단 기술을 살펴본다.

50 GLOBAL FORD
POWER RANGER
포드 픽업을 대표하는 레인저를 소개한다.

56 FOCUS ON
GREAT TOUR
모터스포츠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포드 GT의 여정이 시작됐다.

62 ZOOM IN
THE 'FORD' OF THE FURIOUS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시선을 끄는 포드자동차

64 FORD ISSUE
WONDERFUL FORD WOMEN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포드코리아 여성 인재의 4인 4색 이야기를 전한다.

LIFE STYLE

66 PEOPLE
INFINITE POSSIBILITIES
2017 익스플로러와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조우한 광고 촬영 현장을 찾았다.

70 STYLE
NEED FOR SPEED
빠른 속도를 즐기는 드라이버를 위한 감각적인 레이싱 워치를 소개한다.

74 LEPORTS
물 위를 내달리는 질주 본능, 제트스키
물 위에서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제트스키 입문법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80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82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 · 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HELLO SPRING! LET'S GO CAMPING

자연을 찾아 떠나는 캠핑에 정해진 룰은 없다. 바람에 나뭇잎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 향긋한 풀 냄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연 그대로를 즐기면 된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별 **CAR PRODUCT WRITER** 임유신(〈evo〉 편집장)
COOPERATION LAFUMA(1544-5114), THULE(1644-2022), SNOW PEAK(1611-1958)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마주하며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정제된 감성을 깨운다.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은 수없이 많다. 낚시나 산악자전거 타기, 야생화 관찰하기는 기본이고 자연을 소재로 할 수 있는 모든 레포츠가 가능하다. 캠핑이 주목을 받으면서 SUV 전성시대가 시작됐다. SUV라고 해서 모두 캠핑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도심 주행이 목적인 차들은 아무래도 아웃도어 활동에는 미흡하다. 그렇다고 너무 오프로드 특성만 강조하면 일상에서 불편하다. 익스플로러는 둘 사이의 접점을 아주 잘 맞췄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캠핑 장비가 바로 익스플로러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통한 안락함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쉼표 같은 휴식이 캠핑이다."

자동차 캐리어 시스템을 선도하는 **툴레**(Thule)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만들며, 강도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사막의 고온, 북극의 저온, 방수, 낙하와 통풍, 충격 등 극한의 테스트로 안전하고 편리한 아웃도어 캐리어 제품을 선보인다.
루프랙 툴레 래피드 시스템 753, 항공기 날개 형태로 디자인한 기본 바인 툴레 윙바, 간결하면서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430L 루프 박스 툴레 다이내믹 L(900) 모두 **툴레**

자전거 캐리어 툴레 프로라이드 598 **툴레**

"울퉁불퉁 자갈길로 된 오르막에 올라 개울을 헤치고 진흙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오프로드의 짜릿함은 캠핑을 떠나는 묘미 중 하나다."

익스플로러의 2.3L 에코부스트 엔진은 최고출력 274마력에 최대토크는 41.5kg·m이다. 터보를 달아 중·저속 구간인 2500rpm 최대토크가 흘러나오기에 여유롭게 달린다. 엔진 반응도 매끄럽고 가속도 부드럽다. 캠핑용 차라면 자리마다 인원이 다 타고 짐을 가득 실어도 가뿐히 움직여야 하는데, 익스플로러는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무엇보다 험로를 달릴 일도 종종 생기기에 안정성이 중요하다. 익스플로러의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은 기본 안정성을 보장한다. 여기에 어드밴스 트랙 주행 안정 장치가 급격한 변화로부터 차체를 제어한다. 내리막에서 저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HDC도 오프로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지형 관리 시스템은 캠핑 활동에 힘을 싣는 기능이다. 진흙·모래·자갈·눈·풀밭 등 조건에 맞게 차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다이얼만 돌리면 된다.

“빠르고 편리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소 더디고 불편함을 자초하는 캠핑이 좋은 이유는 오롯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스플로러의 실내로 들어서면 캠핑에 적합한 차라는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캠핑에 알맞은 차량의 1순위 조건은 공간이다. 방대한 캠핑 장비를 남김없이 실을 수 있어야 한다. 익스플로러의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다. 1 · 2열을 세운 기본 구성일 때 1240L라 다섯 명이 타고도 캠핑 장비를 여유롭게 넣을 수 있다. 2열을 접으면 2313L의 공간이 나온다. 짐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넣을지 고민할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하다. 여차하면 차 안에서 임시로 캠핑을 즐겨도 될 정도다. 3열을 세우고 일곱 명이 타도 594L의 공간이 남는다. 3열은 전동식으로 작동하므로 공간 변형이 수월하다. 트렁크 도어는 범퍼 밑에 발을 갖다 대면 열리기에 두 손 가득 캠핑 장비를 들어도 편하게 실을 수 있다. 다양한 전기장치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220V 소켓은 익스플로러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180도 카메라는 전방 상황을 차체 모서리 주변까지 선명하게 비춰 캠핑지로 향하는 극한의 오프로드에서 안전을 돕는다.

레드 플래 서브테라 백팩 23L 툴레

“아웃도어와 캠핑을 결합한 새로운 캠핑이 주목받고 있다. 익스플로러를 타고 떠나 하이킹, 자전거, 카누, 모터바이크 등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를 즐긴 뒤 적당한 곳에 텐트만 치면 캠핑이 시작된다.”

텐트, 코펠, 화로, 랜턴, 테이블, 의자….
캠핑 장비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장비는 자동차다. 용품을 가득 실을 수 있어야 하고, 험로도 잘 달려야 하고, 오래 타도 편안해야 하며, 트레일러를 끌기라도 한다면 힘이 좋아야 한다. 특정 기능이나 성능이 특화된 자동차에 보통 ‘머신’이라는 별칭을 붙인다. 넓은 공간과 여유로운 힘, 우수한 험로 주파 능력과 안정성 등 캠핑에 최적화된 면모를 갖춘 익스플로러야말로 캠핑 머신이다.

네이비 컬러 캐리어 툴레 서브테라 러기지 75L **툴레**
레드 컬러 벤치, 퍼컬레이터, 티타늄 머그잔, 주물 쿠커 세트 콤보
더치 듀오 모두 **스노우피크**
블루 컬러 아이스박스 13L, 테이블 모두 **라푸마**

에스닉한 패턴이 포인트로 심플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밀포드 클래식 텐트, 테이블, 브라운 컬러 체어, 랜턴 스탠드, 플라워 프린트 가방, 블루 컬러 알루미늄 컵 모두 **라푸마**
블랙&화이트 컬러 앙념통, 카키 컬러 체어, 모자, 티타늄 머그잔, 퍼컬레이터, 주물 쿠커 세트 콤보 더치 듀오, 스토브 모두 **스노우피크**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찾아오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는다. 별도 헤아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캠핑의 낭만에 빠져든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새가 지저귀던 캠핑지에 어둠이 깔리면 적막이 찾아든다. 캠핑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인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쌓아 불을 붙인다. 작은 불씨가 천천히 장작에 붙기 시작한다. 타닥타닥 장작불이 타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마주 앉은 이의 얼굴이 적당히 붉게 물든다. 모닥불을 쬐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진다. 도심에서 구경하기 어려운 보석 같은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인다. 익숙지 않아 어색했던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니 그제야 자연과 더욱 친해진 느낌이다. 머리가 닿을 듯 좁은 텐트 안에 펼쳐놓은 폭신한 침낭. 그 속에 들어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든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드 SUV 이벤트 'GO! DO! Camp'

캠핑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사랑하는 포드 SUV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 'GO! DO! Camp'가 펼쳐진다. 익스플로러 · 쿠가 오너들과 함께 캠핑과 오프로드를 즐기는 1박 2일 캠핑 이벤트에 400팀을 초대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fordkorea)을 통해 확인하자.

포드 Go! Do! Camp 참가자를 위한 툴레(Thule)의 특별한 혜택

1 익스플로러: 〈루프 박스 패키지〉
툴레 가로바+다이내믹 L(430L) = 199만 원
2 쿠가: 〈루프 박스 패키지〉
툴레 가로바+투어링 L(420L) = 109만 원
*현장 구매 시 적용

초보 캠퍼, 몸도 마음도 가볍게

뉴 쿠가와 떠난 차박 캠핑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초보 캠퍼라면 무작정 떠나는 대신 망설이기 마련이다.
장비 때문에 캠핑을 고민한다면 주목하자. 포드 뉴 쿠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거창할 필요 없다. 단출한 장비로도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차박 캠핑'. 레츠 고!

EDITOR 오대진(〈월간 아웃도어〉 기자) **PHOTOGRAPHER** 류창렬

차박 캠핑이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한 캠핑 문화의 중심에는 오토캠핑이 있었다. 코베아와 콜맨, 스노우피크 등 오토캠핑 주력 브랜드들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후 성장통이 자연스레 찾아왔고, 캠핑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다양한 캠핑 콘셉트가 가지를 쳤다. 흐름은 '미니멀'. **최소한의 장비로 떠나는 미니멀 캠핑과 백패킹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차박 캠핑'도 마찬가지다. 초보 캠퍼에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안기는 텐트가 필요 없다. 그 자리는 차량의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이 대신한다.** 2열 시트를 접으면 널찍한 침실이 탄생한다. 불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다. 새벽녘에 찾아오는 냉기 걱정도 없다. 추위에 '덜덜' 떨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가장 큰 매력은 '가볍고 경쾌함'에 있다. 숲과 계곡, 해안, 강변, 주차장 등 발길이 멈추는 그곳이 바로 캠핑 장소가 된다. 별도의 텐트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설치와 철거에 대한 부담도 없다. 우중 캠핑 시 다음 날 텐트 스킨을 말려야 하는 걱정도 없다.

포드 유럽의 대표적 베스트셀링 모델 쿠가가 2017년형으로 돌아왔다. 내부와 외부 디자인은 심플하고 강렬해졌으며, 다양한 편의 사양과 함께 연비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기본 적재 용량은 406L, 60대 40으로 접하는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1603L까지 확장된다. 여기에 손을 쓰지 않고 발동작만으로 트렁크 해치를 여닫을 수 있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편리하다.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차박 캠핑'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밤하늘의 별을 덮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초보 캠퍼의 가장 큰 고민은 '장비'다. 카메라, 자전거 등의 취미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것이 첫 번째, 수많은 브랜드와 종류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 하는 고민이 두 번째다. '차박 캠핑'은 이 두 가지에서 좀 더 자유롭다. 가격 부담은 물론 덩치 큰 텐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매트리스와 침낭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이불 등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작은 테이블과 체어, 랜턴 등은 캠핑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으면 유용한 아이템. 타프는 있으면 좋지만 '꼭'은 아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나무 그늘이 있다면 말이다. 단, 가장 중요한 차량은 2열 시트가 접하는 SUV여야 한다. 해치백, 왜건도 물론이다.

덩치 큰 캠핑용품을 뒤로하고 가볍게 캠핑을 떠났다. 캠핑 장비가 단출해지니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다. 덩달아 마음도 여유롭다. 텐트 설치가 서툰 초보들은 마음의 짐까지 덜어준다. 설치 시간의 배가 소요되는 철거도 마찬가지. 마음의 여유는 정리 후 캠핑장을 떠날 때까지도 온전하다. 이것이 바로 '차박 캠핑'의 매력이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3

1

차박 캠핑에 유용한 아이템

1 헬리녹스 체어
캠핑 체어의 새로운 장을 연 브랜드가 바로 헬리녹스다. 텐트에 적용되던 폴을 경량 의자에 접목했다. 경량성과 편안함에 심플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캠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체어원, 선셋체어 등 용도별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730-1928

2 미니멀웍스 인디언 행어
텐트에 사용되던 폴이 행어로 변신했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수납이 용이하며, 설치와 해체도 간단하다. 주방 식기와 소품 등을 걸 수 있고, 빔 스크린 거치대나 옷걸이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70-8796-0869

3 루미누들 LED 라이트 로프
캠핑장의 밤을 밝혀줄 LED 라이트.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로프'다. 길게 늘어뜨려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고, 다섯 개의 자석과 네 개의 타이를 이용해 로프를 차량과 타프 등에 고정할 수 있다.
문의 www.powerparctic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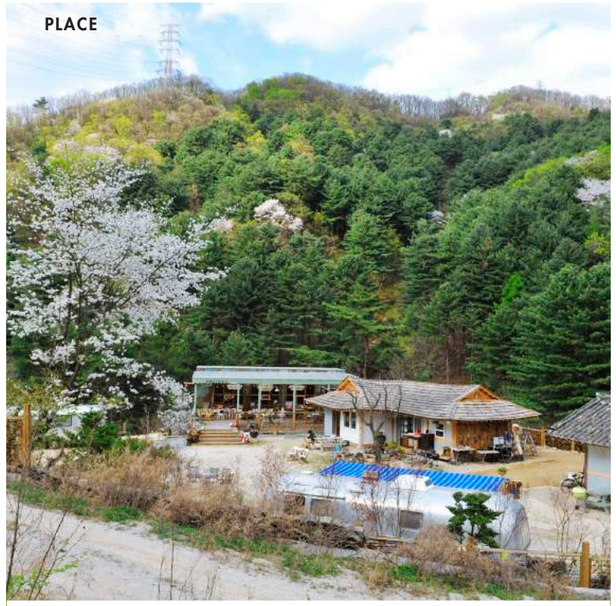
HEALING IN THE GREEN

캠핑의 계절이다. 쏟아질 듯한 별을 이불 삼아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때로는 애완견과 함께, 때로는 개봉 영화와 함께하는 이색적인 캠핑장 다섯 곳을 소개한다.

EDITOR 정예진

유러피언 스타일의 럭셔리 글램핑, 생각속의 집 글램퍼스

양평에 자리한 생각속의 집 글램퍼스는 글래머러스한 캠핑이라는 콘셉트에 딱 맞는 곳으로 캠핑장은 여느 부티크 호텔 못지않은 디자인 요소가 가득하다. 큐, 반딧불, 페블, 로투스라는 이름 그대로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돔 텐트는 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건축 디자이너 심희준, 박수정의 손을 거친 텐트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다. 야외 덱 위에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 일반 텐트와 차이가 크다는 점도 특색. 텐트 안에서도 자연광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큐'동은 내부에 복층 구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높이를 갖췄다. 내부는 한 공간이지만 가구와 주방, 가벽의 적절한 배치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 각각의 텐트는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텔 못지않은 시설과 서비스를 갖췄지만, 텐트 앞에 펼쳐진 전망과 덱,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는 캠핑의 본질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문의** 070-4221-6526, www.glampers.co.kr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 그린빌3 캠핑장

포천에 자리한 그린빌3 캠핑장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여행에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는 숙소 때문에 즐거워야 할 휴가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 경험, 애견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린빌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게다가 반려견을 위한 시설과 풍광을 갖춰 반려견이 더 좋아하는 곳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요한 이곳은 잣나무 숲이 숨을 쉬며 내뿜는 신선한 공기로 가슴속까지 시원해진다. 글램핑뿐 아니라 펜션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캐러밴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 부지 근처에는 반려견들이 수영을 하며 더위를 식히기에 알맞은 계곡이 있다. 그린빌에서의 휴가는 도심에서 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산책하지 못했던 반려견이 자연을 즐기고,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31-533-2244, greenvil.kr

숲속에서의 환상적인 하룻밤, 헤세의 정원

태곳적 신비의 시간을 즐기는 판타지와 안락함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헤세의 정원이다. 마치 투명한 풍선 속에 가구를 옮겨놓은 것처럼 보이는 버블텐트는 실제로도 공기 주입식으로 유지해 전원이 꺼지면 구조물 자체가 가라앉는 재미있는 콘셉트다. 프랑스 건축가 스테판 뒤마(Stephane Dumas)가 처음 디자인한 자연친화적 구조물로 실내에 있어도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투명한 텐트 안에 몸을 누는 것만으로 시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모두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일몰과 일출 시간이면 버블텐트의 매력은 배가된다. 아침에는 시끄러운 알람이 아닌 일출의 빛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춰 자외선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커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 막힌 공간의 침실을 이용할 수 있어 빛과 어둠을 적절히 조절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31-877-5118, www.hessegarden.com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며 누리는 감성 글램핑, 어반 슬로우 시티

수상 레저와 바비큐를 즐기는 신나는 휴가를 원한다면, 어반 슬로우 시티를 주목하자.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어반 슬로우 시티는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면서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가기도 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북한강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트 등 전문적인 액티비티가 가능해 다른 캠핑장과 차별화된다. 특히 크루즈 요트는 차분하게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이 밖에도 바나나보트, 낚시를 즐길 수 있고 트램펄린, 수영장도 갖추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캠퍼들에게 더할 나위 없다. 텐트는 최대 4인부터 6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내부는 전통적인 캠핑 시설을 따르지만 유니온기 프린트를 활용한 텐트 등 감성적인 면이 돋보인다. 글램핑뿐 아니라 개인 텐트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셀프 캠핑 존이 있어 일반 캠핑이나 오토캠핑으로도 제격이다. **문의** 1899-9349, www.urbanslowcity.com

영화와 함께하는 글램핑, 용봉산 글램핑

캠핑 초보라면, 글램핑으로 캠핑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캠핑 장소이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곳을 찾는다면 충남 용봉산 글램핑이 제격이다. 용봉산 글램핑은 충남 홍성에 마련된 대규모 글램핑 존으로, 자동차 극장에서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다. 따로 준비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오붓하게 영화를 볼 수도 있다. 개봉 영화뿐 아니라 이벤트 등을 위해 마련한 영상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밤에는 조명을 밝힌 텐트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 분위기를 더한다. 마치 축구공을 잘라 엎어놓은 듯한 돔 텐트의 내부에는 해먹과 침대 등 편리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넓은 잔디 광장이 마련되어 있고 승마 체험, 돔형 세우기 등과 더불어 계절에 따른 갖가지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여름에는 실외 수영장도 이용 가능하다. **문의** 용봉산글램핑.kr

OUTDOOR TABLE

자연 속에서 즐기는 요리는 그 풍미가 배가되어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다. 가족 또는 연인을 위해 요리 초보인 남자들도 간편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아웃도어 레시피.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FOOD & STYLING 박용일(YONG STYLE) **ASSISTANT** 남경현, 백신애
*레시피는 모두 4인 기준입니다.

그릴드 파프리카 쇠고기 꼬치 & 그릴드 아보카도 새우 꼬치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비큐 그릴 요리다. 요리의 다양한 식자재를 꼬치에 꿰어 그릴에 노릇하게 굽는 꼬치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에 그릴 향까지 더해져 풍미가 한층 살아난다. 각기 다른 식감과 맛이 어우러진 꼬치 요리의 매력은 꼬치에 꽂아 손쉽게 만드는 재미와 하나씩 빼먹는 즐거움이다. 두 가지 컬러의 파프리카와 쇠고기를 번갈아 끼우거나, 붉은 새우와 초록색 아보카도를 번갈아 끼우면 화려한 캠핑 요리가 완성된다.

재료 주황색 · 노란색 파프리카 1개씩, 쇠고기 400g, 레드 와인 2큰술, 소금 · 후춧가루 약간씩, 아보카도 1개, 새우(블랙타이거) 4마리, 버터 적당량, 다진 이탈리아 파슬리 적당량
소스 올리브 오일 4큰술, 오렌지즙 2큰술, 레몬즙 1큰술, 화이트 와인 비니거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소금 ·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1 주황색과 노란색 파프리카는 깨끗이 씻어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8등분한다. 2 쇠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레드 와인과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 뒤 10분간 재워둔다. 3 아보카도는 반 갈라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4 깨끗하게 손질한 새우는 머리와 껍질을 벗긴 뒤 버터를 고루 바른다. 5 꼬치에 ①의 파프리카와 ②의 쇠고기를 번갈아가며 끼우고 또 다른 꼬치에 ③의 아보카도와 ④의 새우를 끼운 뒤 그릴에 노릇하게 구워 다진 파슬리를 뿌린다. 6 볼에 분량의 소스 재료를 넣어 섞은 뒤 ⑤의 꼬치에 고루 바른다.

나초칩 치즈 팬피자

옥수수 가루로 만든 토르티야에 녹인 치즈를 얹은 나초는 멕시코의 대표적 간식이다. 바삭한 나초로 이국적이고 색다른 나초칩 치즈 팬피자를 만들 수 있는데, 간편하게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어 간식이나 술안주로 제격이다. 양파, 피망, 블랙 올리브, 토마토, 살라미, 모차렐라 치즈를 올려 모차렐라 치즈가 살짝 녹을 때까지 익힌 뒤 먹으면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다양한 토핑을 얹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으며, 영양도 풍부하다.

재료 양파 1/2개, 초록색 · 빨간색 피망 1/2개씩, 블랙 올리브 1/4컵, 살라미 40g, 토마토 1개, 나초 200g, 토마토 페이스트 1/2컵, 모차렐라 치즈 1½컵, 파르메산 치즈 가루 1큰술(팬 사이즈 24cm 정도)

만드는 법

1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썬다. 초록색과 빨간색 피망은 깨끗이 씻어 씨를 제거한 뒤 1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다. **2** 블랙 올리브는 0.5cm 두께로 자르고, 살라미는 얇게 슬라이스하며, 토마토는 1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다. **3** 팬에 나초를 깔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바른 뒤 손질한 ①, ②를 올리고 모차렐라 치즈를 얹는다. **4** ③의 팬을 은박지로 감싼 뒤 그릴에 15분간 구워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뿌린다.

견과류 사과 통조림

시각적으로 근사하면서 달콤한 캠핑 디저트로 견과류 사과 통조림을 추천한다. 사과 윗부분을 잘라 뚜껑을 만들고 사과 속을 파낸 뒤 호두와 아몬드, 말린 크랜베리, 사과잼 등을 채워 넣고 시나몬 가루를 뿌려 뚜껑을 덮어 익히면 특별한 디저트가 된다. 사과를 뭉근하게 익히면 당도가 더욱 높아진다. 사각사각 씹히는 달달한 사과와 바삭한 견과류의 완벽한 조화가 캠핑 테이블을 멋진 레스토랑의 식탁으로 만들어준다.

재료 호두 · 아몬드 2큰술씩, 사과잼 4큰술, 레몬즙 1큰술, 말린 크랜베리 1큰술, 시나몬 가루 1/2 작은술, 너트맥 약간, 사과 4개, 버터 적당량

만드는 법 **1** 호두와 아몬드는 잘게 으깬다. **2** 볼에 사과잼과 레몬즙을 넣어 고루 섞은 뒤 ①의 견과류와 말린 크랜베리, 시나몬 가루, 너트맥을 넣고 다시 한번 섞는다. **3** 사과는 깨끗이 씻어 윗부분을 잘라 뚜껑을 만들고 속을 파낸 뒤 ②의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는다. 사과에 버터를 고루 발라 은박지나 유산지로 감싼다. **4** ③의 사과를 팬에 담은 뒤 장작불이나 버너 위에 올려 30분간 굽는다.

재스퍼 국립공원 와바소 캠핑장

THE HEART OF CANADIAN ROCKIES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도 온통 뿌연 하늘과 오밀조밀한 잿빛 빌딩 숲뿐. 포드 SUV를 타고 넉넉한 대자연의 품에 안기는 로드 트립을 떠나보자. 자연이 선사하는 푸른색 변주와 콧속을 흐르는 청청한 공기만으로도 에너지를 듬뿍 얻을 수 있다.

EDITOR 김은성

청쾌한 공기가 흐르는 곳, 재스퍼 국립공원

굽이굽이 산맥을 이룬 '대륙의 지붕' 로키 산맥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재스퍼 국립공원(Jasper National Park)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캐나다 최대 규모의 산악 공원이다.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과 에메랄드빛 호수, 널찍한 빙하 지대를 이룬 이곳을 방문하기에는 6~9월이 가장 좋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옆에 두고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눈까지 맑아진다. 거대한 산봉우리 사이에 자리를 펼쳐놓고 피크닉 분위기를 내거나 우연히 마주치는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뜨거운 커피 한 잔 손에 쥐고 상쾌한 고산 지대의 공기를 코로 깊이 들이마셔보자. 들이마신 만큼 크게 내쉬는 숨과 함께 온갖 걱정과 고민이 훅훅 떨어진다.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달리다 보면 시원한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고, 뜨끈한 미엣 온천(Miette Hot Springs)에 몸을 담그면 따뜻한 자연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밤에는 가슴을 활짝 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수백 개, 수억 개의 반짝거리는 별이 품안으로 와락 쏟아질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재스퍼 국립공원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 올 한 해 동안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휘슬러 산 전망대

휘슬러 산으로 향하는 재스퍼 트램웨이

품안에 자연 한가득, 와바소 캠핑장

재스퍼 국립공원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려면 캠핑만 한 것이 없다. 재스퍼 국립공원에는 1인용 텐트부터 대형 캠핑카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캠핑장이 있다. 그중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와바소 캠핑장(Wabasso Campground)을 추천한다.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누리면서도 캠핑 시설을 웬만큼 갖춰 소음을 피해 휴식을 취하기 좋다.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을 앞에 두고 힘차게 흐르는 강에서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별똥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 수 있는 밤하늘만으로도 이곳에서 밤을 지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와바소 캠핑장은 재스퍼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자리해 공원 곳곳을 탐험하기에도 좋다. 5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하며 231개의 텐트가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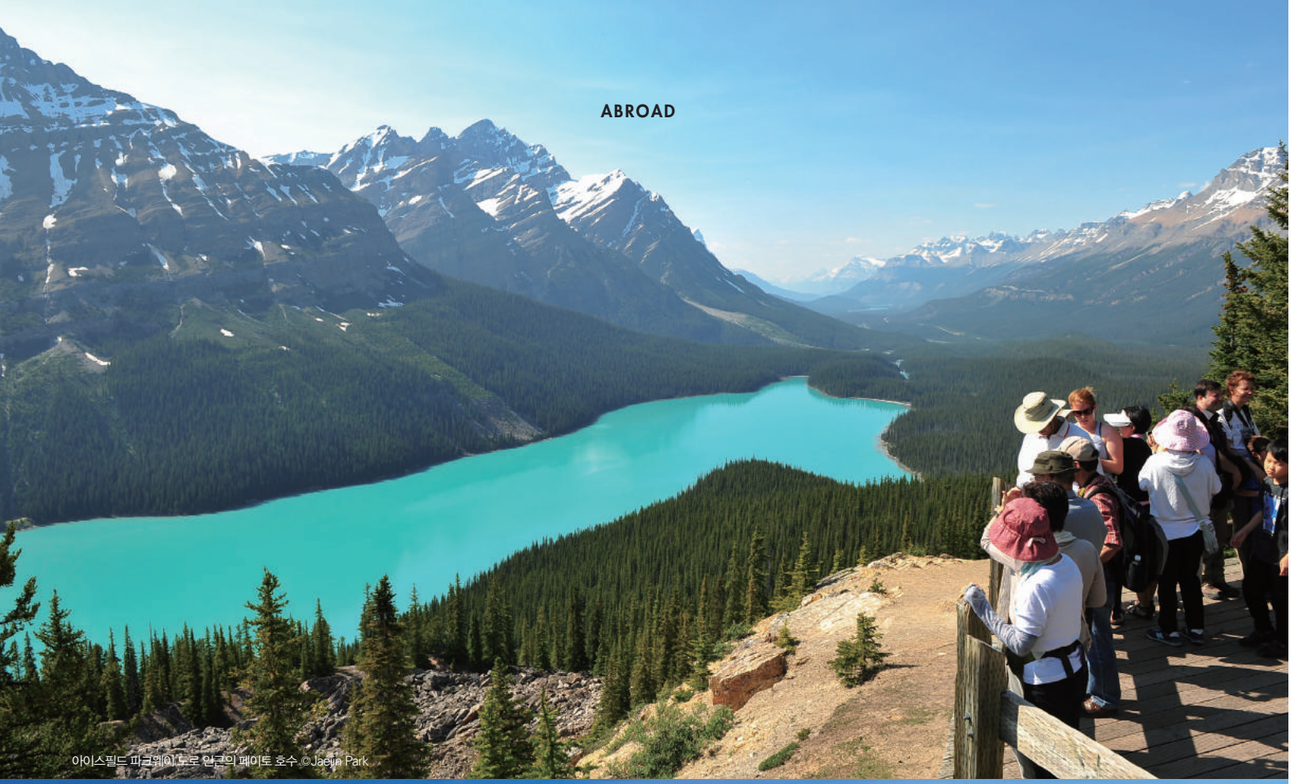
캠프의 묘미는 역시 모닥불에 구워 먹는 바비큐. 불을 땔 수 있는 허가증을 구매하면 땔감나무와 음식물 보관함을 받는다. 곰이 종종 출몰하기에 식사 시간 외에는 음식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한다. 곰이 열 수 없게 만든 구조라 유용하며, 땔감은 제공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재스퍼 국립공원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봄 · 여름에는 낮 동안 섭씨 10~18℃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니 여벌옷은 필수. 1년 내내 갑자기 눈이나 비, 우박이 내릴 수 있으니 방수 기능을 갖춘 재킷과 바지, 우산 등을 챙기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조용한 시간(Quiet Hours)'으로 음악을 틀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시간 동안에는 음주와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된다고.

와바소 캠핑장에서 가까운 뷰포인트로는 해발 고도 3300m의 에디스 카벨 산을 꼽을 수 있다. 카벨 로드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글래시어 트레일(Glacier Trail)은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가벼운 코스다. 800m가량 걸어가면 이내 카벨 연못(Cavell Pond)과 에인절 빙하(Angel Glacier)가 보인다. 녹청색 에인절 빙하는 날개를 양쪽으로 활짝 펼친 천사의 모습을 닮았다. 에인절 빙하 아래로는 에메랄드빛 카벨 연못이 있다. 카벨 연못에 빙하가 둥둥 떠 있는 모습에서 과거 빙하 시대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커다란 빙하가 경사를 타로 미끄러져 산산이 조각나며 바위의 표면을 적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이킹에 자신이 있다면 반나절 정도 걸리는 에디스 카벨 메도스 트레일(Edith Cavell Meadows Trail)에 도전해볼 만하다. 왕복 16km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고난도 코스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된 로키 산맥의 숨은 풍경을 눈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기암절벽을 옆에 두고 트레일을 따라 걷다 보면 다람쥐나 로키 마멋, 새앙토끼, 들꿩과 만나기도 한다.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지만 이토록 높은 산에 피어난 희귀 야생화를 보면 단단한 생명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다소 험한 길도 있으니 등산화를 꼭 착용하자.

재스퍼 국립공원의 캠핑장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도로 인근의 페이토 호수 ©Jaeun Park

미엣 구역의 아타바스카 강

재스퍼 국립공원의 보석, 멀린 호수

재스퍼 마을에서 멀린 호수(Maligne Lake)로 향하는 48km의 구불구불한 길은 그야말로 재스퍼 국립공원의 백미다. 양옆으로는 멀린 산맥과 엘리자베스 산맥이 우뚝 솟아 있고 터키석 빛깔을 품은 멀린 강이 그 사이를 흐른다. 엘크나 산양, 큰뿔양생양, 사슴은 물론 흑곰과 회색곰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멀린 레이크 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이내 근사한 협곡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좁은 폭에 50m의 깊이로 아슬아슬하게 깎인 멀린 캐년(Maligne Canyon). 넉넉잡아 2시간 정도 걸리는 왕복 8km의 멀린 캐년 트레일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빚은 자연의 조각을 감상하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 여름에는 가볍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겨울철에는 아이스 워킹까지 즐길 수 있다.

멀린 호수로 향하는 길에 메디슨 호수(Medicine Lake)가 있다. 원주민은 이 호수의 물에 약효가 있다고 믿어 메디슨 호수라 일컬었다. 지하 동굴 지대로 물이 빠지는 구조의 메디슨 호수는 9월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늦가을이 되면 작은 물웅덩이만 여럿 남기고 사라진다. 하지만 봄이 되면 수면이 다시 불끈 솟아오르니, 호수가 마치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자그마한 몸집에 짧고 둥근 귀의 새앙토끼가 바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 멀리 성큼성큼 지나가는 흑곰이 시야에 들어온다. 야생동물, 특히 곰은 위험하니 충분히 거리를 두고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관찰하자.

멀린 레이크 로드 끝에 다다르면 재스퍼 국립공원의 하이라이트인 멀린 호수의 풍광에 숨이 막힐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길이 22km의 멀린 호수는 자연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며 수면에 산을 드리운다. 기다란 멀린 호수의 중앙에 둥둥 떠 있는 스피릿 아일랜드(Spirit Island)까지 크루즈 보트를 타고 가보자. 비죽비죽한 침엽수가 겨우 발을 딛고 서 있는 작은 섬과 반짝이는 빙하로 덮인 산맥이 둘러싼, 말 그대로 그림 같은 풍경이 기다린다. 낚시에 관심이 있다면 멀린 호수에서 송어 낚시를 즐길 수도 있으니 낚시 투어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포드 SUV를 타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달려보자. 재스퍼 마을에서 밴프 국립공원까지 이어진 93번 고속도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Icefields Parkway). 빙하와 폭포, 눈이 시큰해지는 청색의 산맥 사이로 달리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만난 야생동물이 지나가기를 잠시 기다리는 여유도 드라이브의 묘미 중 하나다. 230km에 이르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타고 로키 산맥을 가르다 보면 자연의 품에 푹 안긴 듯하다. 중간중간 멈춰 뷰포인트를 즐기거나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날 것이다. 밴프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 페이토 호수(Peyto Lake)를 놓치지 말 것. 해발 2000m에 자리 잡은 영롱한 푸른색이 감도는 물빛의 호수가 매혹적이다.

재스퍼 국립공원 남쪽 끝자락에 이르면 광대한 컬럼비아 빙원(Columbia Icefield)이 펼쳐진다. 수십만 년에 걸쳐 눈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빙하를 이룬 이곳은 세월의 무게를 층층이 담은 푸른빛을 머금는다. 여섯 개의 빙하로 이루어진 컬럼비아 빙원에서 녹은 물이 강으로 흐르고 북극해와 대서양, 태평양 세 개 대양으로 흘러 들어간다. 두께가 365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에 달하는 빙하 지대를 직접 걸어보고 싶다면 얼음 위를 달리는 설상차를 타보자. 글래시어 스카이워크(Glacier Skywalk)에서 선왑타 계곡(Sunwapta Valley)의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유리 전망대에 들르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드라이브는 더없이 완벽해진다.

INFORMATION

캠핑장 예약

재스퍼 국립공원의 캠핑장 중 휘슬러(Whistlers), 와피티(Wapiti), 와바소(Wabasso), 포카혼타스(Pocahontas)는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마다 시설과 수용 규모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할 것.
– **인터넷 예약** reservation.pc.gc.ca
– **전화 예약** (+1)877–737–3783

재스퍼 국립공원 여행 정보

– **앨버타 관광청** www.travelalberta.com/kr
– **앨버타 관광청 블로그** blog.naver.com/alberta_blog

CITY OF TOMORROW

자동차 회사는 단순히 차만 만드는 곳이 아니다. 자동차와 연관된 도심 환경과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포드는 미래 도시를 위해 자동차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제시한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자동차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쯤 되면 자동차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자동차를 만드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다. 자동차와 연관된 도시 환경과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미래 도시 환경에 맞는 이동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포드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전 세계 주요 도시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포드 시티 솔루션팀은 교통 생태계가 진화해온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반영해 각 도시에 맞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각 지역사회에 맞춘 특화된 솔루션을 제시한다.**

전 세계 자동차와 교통 환경은 이미 변화기에 접어들었다. 자율 주행차 개발이 급속히 이뤄지고 전기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인다. 이용 면에서는 이동을 원하는 사람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이 활발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동차가 필요할 때 빌리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 시장도 급속히 커졌다. 이런 서비스로 인해 주요 대도시의 자동차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공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유를 위한 자동차는 필요하지만 개인 자동차는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자동차 회사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유 서비스가 도심 인프라와 융합해 모빌리티 교통 생태계를 실현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포드가 선도하는 자율 주행차

2016년, 포드자동차 CEO 마크 필즈는 2021년까지 자율 주행차를 대량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동차들은 라이드 헤일링과 카 셰어링 등 공유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다. 양산차 업체 중에서는 앞선 자율 주행 기술을 보유한 포드가 본격적으로 자율 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해 나섰다. 포드가 자율 주행차와 공유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보급률 때문이다. 자율 주행차는 각종 센서 등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에 초기에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일단은 공유 서비스에 자동차를 공급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 포드는 공유 서비스에도 관심이 많은데, 자율 주행차는 포드가 운영하는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이동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공유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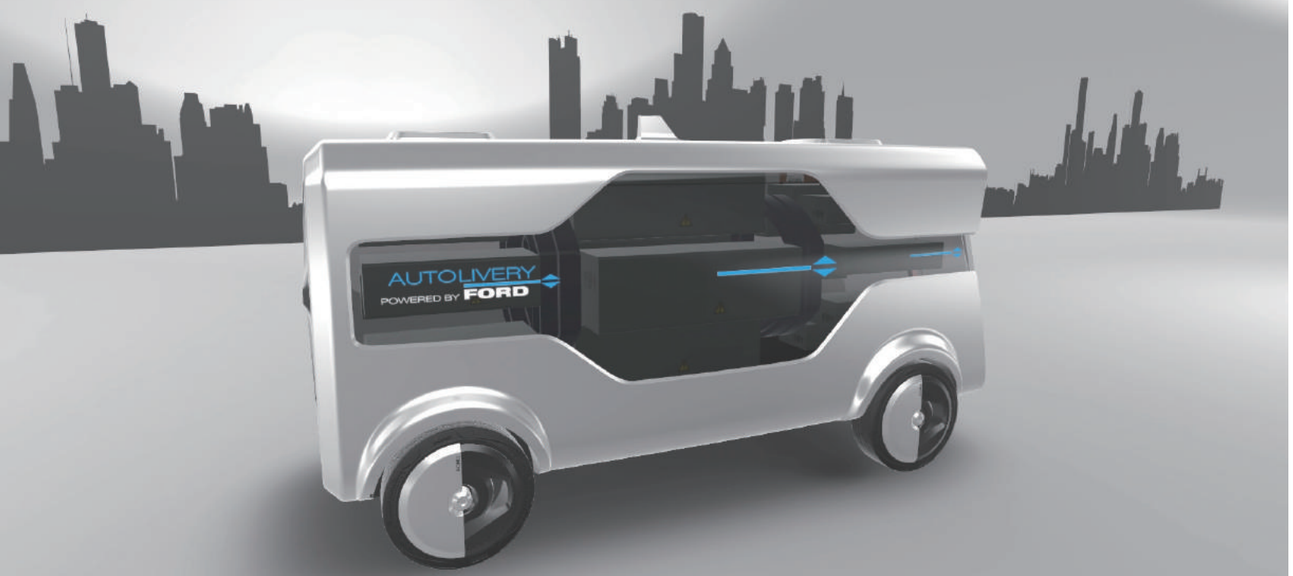
2017년 1월 초에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포드는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포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략과 제시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기 미래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율 주행차 기술에 집중하고, 2021년까지 완전 자율 주행차를 선보이며 전기차 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15년 후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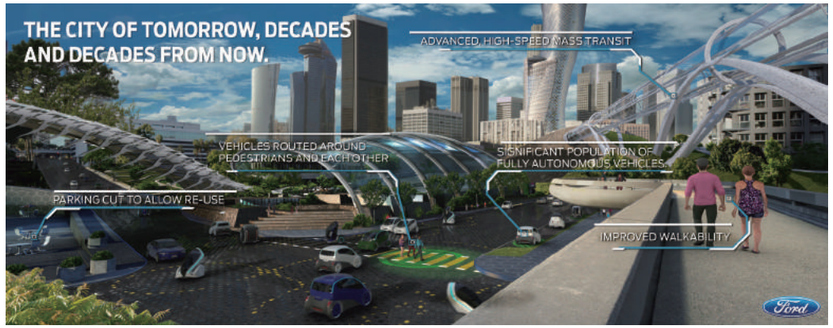
포드는 2017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미래 도시(City of Tomorrow)' 비전을 제시했다.

포드의 이사회 의장인 빌 포드(가운데)와 CEO 마크 필즈(오른쪽)가 진지하게 미래 도시에 대해 논하고 있다.

퓨전 자율 주행차. 포드는 자율 주행 선도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포드가 2017 MWC에 선보인 오토리버리 콘셉트. 드론과 밴을 결합한 자율 주행 배송 서비스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래 첨단 모빌리티 도시를 완성하는 포드

공유 서비스의 영향력도 키운다. 포드가 인수한 크라우드 소싱 셔틀 서비스인 채리어트(Chariot)는 사업 지역을 계속 확대 중이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 오스틴에 서비스 중이고, 올해에는 해외 한 곳을 포함한 여덟 개 도시로 확장한다. 포드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 회사인 모티베이트(Motivate)와도 긴밀하게 협업한다. 2018년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전거를 7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포드패스 플랫폼에서 포드 고바이크(Ford GoBike)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동차 회사 포드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혁신 스마트 디바이스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자동차와 IT 제품의 연결성도 높인다. 자동차 간 통신도 긴밀하게 이뤄진다. 앞으로 5년 동안 포드는 내장형 모뎀이 들어간 20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차들이 늘어나면 도시는 스스로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화할 것이다. 교통 흐름 개선과 오염 물질 감소에도 큰 효과를 보게 된다.

장기적으로 포드는 자율 주행차 개발에 집중하고 그 대부분을 전기차로 채울 예정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고속 대중교통 수단도 발전시킨다. 포드가 제안하는 미래의 혁신 모습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공중촬영과 수색 등에 투입되는 드론을 꼽는다. 다음은 교통 생태계의 모든 부분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교통 관리 시스템이다. 자동차와 바이크, 드론, 대중교통 수단, 교통신호, 주차 관리 시스템, 충전소 등을 통합 관리한다. 자율 주행차를 기반으로 교통 환경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첨단 기술도 등장한다. 교통 정체를 없애고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만든다. 도로는 녹지와 공원으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포드가 제시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면 미래 생활상이 그려진다. 이동할 때에는 굳이 자동차를 갖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자율 주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저렴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이기에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이 이뤄진다. 공유는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나 바이크 등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 이용 과정이나 정보 등은 이동 수단과 긴밀하게 연결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유 서비스 확대로 개인 자동차가 줄면서 도시의 자동차 밀도가 낮아지고 녹지가 늘어나 환경은 더욱 쾌적하게 바뀔 것이다.

포드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왔고, 그 차들은 사회와 개인 삶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이제 포드는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으로 선택권을 넓히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산업계 각 분야에 포진해 있다. 도시의 미래에 관해서라면 자동차 회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 역할을 포드가 해내고자 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F-150 픽업에 쓰인 LED 헤드램프. 픽업 중에는 처음 시도한 LED 헤드램프다.

자동차 기술은 '기념비적 발명'을 겪으며 발전한다. 한 단계 도약하는 특정 기술이 나오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룬다. 자동차 헤드램프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발전을 이룬 분야다. 자동차 헤드램프는 등불에서 전구, 할로겐, HID, LED, 레이저 순서로 발전했다.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없어 보이다가도 어느새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바꿔놓는다.

자동차 발명 초기인 19세기 후반, 헤드램프는 등불이었다. 호롱불같이 기름을 연료로 쓰다 강한 빛을 내면서 비바람에 강한 아세틸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 10년쯤 지나 전기 헤드램프가 선보였다. **헤드램프가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은 1908년 포드 모델 T가 나오면서부터다. 자동차가 대량생산되면서 야간 이동이 많아졌고, 불을 밝힐 일도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헤드램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할로겐램프는 1962년에 처음 선보였다. 석영전구 안에 할로겐 가스를 넣은 할로겐램프는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길고 밝아 헤드램프로 쓰기에 제격이었다. 지금도 헤드램프 광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1990년대 초에는 HID(고압 방전 램프)가 등장하면서 헤드램프 기술도 한 단계 도약했다. HID는 필라멘트 없이 방전에 의해 빛을 내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은 할로겐 헤드램프의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쓰는 헤드램프가 등장했다. LED를 광원으로 사용해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낮은 전압에도 작동한다. LED는 2007년 양산차에 처음 쓰였는데, 당시 가격이 비싸 고급차 중에서도 일부에만 장착됐다. 지금도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고급차에는 기본으로 장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LED의 완전 대중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자동차 업계는 벌써 차세대 광원인 레이저에 주목하고 있다. 헤드램프 발전의 끝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선보이는 것. 할로겐에서 HID로 넘어가는 데 40여 년이 걸린 반면 HID에서 LED로 넘어가기까지는 1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LED 다음인 레이저가 등장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새로운 기술과 보급은 별개의 문제다. 대중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차는 할로겐램프를 사용하며, HID도 기본 사양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LED는 본격적인 대중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각 업체들은 LED의 대중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야간 시야를 개선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LED 헤드램프는 작은 소자의 집합체이기에 응용 범위가 넓다. 램프의 빛을 비추는 방향이나 범위를 조절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단순한 광원의 범위를 넘어 헤드램프 기술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포드도 헤드램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이미 양산차에도 고급 기술을 선보여 기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GUIDING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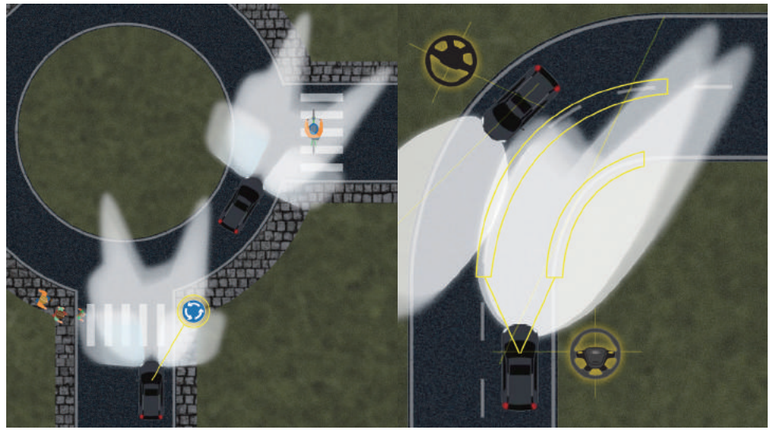
헤드램프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다. 포드는 고급 기술을 빠르게 양산차에 적용해 헤드램프 기술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헤드램프 기술의 본보기라 할 만하다.

WRITER 임유신(〈evo〉 편집장)

몬데오의 다이내믹 LED 헤드램프는 다양한 조건에 맞춰 비추는 범위를 조절한다.

"포드가 선보인 '카메라 베이스 프런트 라이팅 시스템 (Camera-Based Front Lighting System)'은 전방의 상황을 파악해 그에 맞게 빛을 비춘다. 이 시스템은 차선 인식 카메라, 적외선 센서, GPS를 하나로 합쳤다."

헤드램프는 차의 인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해낸다. 포드 GT 슈퍼카의 헤드램프



카메라 베이스 프런트 라이팅 시스템은 회전 교차로 등 도로 구조를 인식해 최적의 빛을 비춘다.

먼저 감지해 비추는 똑똑함

포드가 선보인 '카메라 베이스 프런트 라이팅 시스템(Camera-Based Front Lighting System)'은 전방의 상황을 파악해 그에 맞게 빛을 비춘다. 이 시스템은 차선 인식 카메라, 적외선 센서, GPS를 하나로 합쳤다. 코너가 시작되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빛을 비춘다. 이 기술은 이미 쓰이고 있는 포드의 '어댑티브 프런트 라이팅 시스템'과 '교통신호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장애물을 미리 발견해 비춘다'는 기술 구현은 간단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는 복잡하다. **GPS가 이동 중인 경로를 파악해 코너나 회전교차로, 갈림길 등이 나타나면 헤드램프가 미리 빛을 비춘다. GPS가 읽어내지 못할 때에는 룸미러 뒤에 달린 카메라가 나선다. 차선을 감지해 커브를 예측하고 헤드램프에 신호를 보낸다. 카메라가 읽은 정보는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다음번에 같은 길을 지날 때 활용한다. 스폿 라이팅 시스템은 그릴에 달린 적외선 센서가 120m 전방까지 최대 여덟 사람이나 큰 동물을 감지해낸다. 안개등 옆에 달린 두 개의 특수한 LED가 도로 표면에 빛을 비춰 운전자의 인식을 돕는다.** 실내 디스플레이에는 물체를 표시하고 붉은색이나 노란색 프레임으로 나타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포드는 이 기술의 개발 목적 중 하나로 '운전자의 느린 반응'을 꼽는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의 감각으로 위험물을 감지해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그런 단점을 보완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익숙지 않은 초행길에 당황하기 쉬운 운전자'를 위한 목적도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도 보호한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이나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해 충돌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기술이다.

차원이 다른 다이내믹 헤드램프

몬데오에 들어간 '다이내믹 LED 헤드램프'는 자연광에 가까운 풀 LED 헤드램프와 포드의 어댑티브 프런트 라이팅 시스템의 결합이다. 헤드램프 불빛이 비추는 각도와 밀도를 운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이 시스템은 달리는 속도, 주변 밝기 상태, 스티어링 각도, 앞차와의 거리, 와이퍼 작동 상태 등에 따라 일곱 개 작동 조건으로 나뉜다. 고속에서는 더 멀리 밝게 비추고, 도심에서는 아래쪽으로 분산해 비추되 좀 더 빛의 밀도를 높인다. 저속으로 코너를 돌 때에는 바깥쪽으로 더 많은 빛을 보낸다. 보행자나 자전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너를 고속으로 돌 때에는 굽은 쪽으로 빛의 각도를 더 굽힌다. 이 밖에도 천천히 달리는 주택가, 후진, 악천후 등에 따라 빛의 범위를 달리한다. 밤에도 낮과 비슷한 시야가 확보되기에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

포드는 다이내믹 헤드램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몬데오가 야간 활주로에서 경비행기 착륙을 유도하는 CF를 선보이기도 했다. 유도등 시스템이 고장 난 활주로에서 몬데오가 헤드램프를 밝혀 경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킨다는 내용이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는 헤드램프의 환한 불빛으로 활주로를 비추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카메라 베이스 프런트 라이팅 시스템은 GPS를 이용해 지형에 맞게 빛을 비춘다. 수집한 GPS 정보는 내비게이션에 저장해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할 때 활용한다.

상황에 맞춰 입체적으로 조절되는 각도

헤드램프에서 좌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상하 움직임이다.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헤드램프의 각도를 올려야 하지만, 맞은편에 다른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는 상향등이 달려 있어 필요할 때 켤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한다.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켠 상태를 잊기라도 하면 마주 오는 자동차에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이미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는 시스템은 많이 보급됐지만, 이는 단순히 카메라로 불빛을 감지해 상향등을 켜고 끄는 수준이다.

포드의 '눈부심 방지 상향등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조건에 맞춰 상향등을 제어한다. 상향등의 일부만 작동하거나 비추는 범위를 달리하는 등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마주 오는 차를 비추는 상향등은 끄고 상관없는 다른 쪽은 그대로 상향등을 유지해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식이다. 작동 원리는 우선 앞유리에 달린 카메라가 전방 800m 앞까지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의 후미등 불빛을 감지한다. 장애물 유무에 따라 상향등을 제어한다. 운전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작동한다.** 눈부심 방지 상향등은 포드의 '오토 하이빔'과 '어댑티브 라이팅 시스템'을 포함한 '다이내믹 LED 헤드라이트' 기술에 기반을 둔다. 운전자의 눈이 광량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밝기 변화는 부드럽게 이뤄진다.

헤드램프는 오랜 세월 단순히 앞을 비추는 역할만 해왔다. 이제는 자동차가 스스로 생각해서 비추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헤드램프를 조절하기 위한 운전자의 상황 판단을 자동차가 대신한다. 위아래만 비추던 범위도 다양한 각도와 밀도로 조절해낸다. LED 헤드램프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응용 범위는 커지기 때문에 기발한 헤드램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전망이다. 포드는 앞선 헤드램프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해왔다. 헤드램프의 진화 방향이 궁금하다면 포드의 기술에 주목하면 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드의 '눈부심 방지 상향등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조건에 맞춰 상향등을 제어한다. 상향등의 일부만 작동하거나 비추는 범위를 달리하는 등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적외선 센서가 전방 120m 앞의 사람이나 동물을 감지해 빛을 비추고 차 안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POWER RANGER

레인저는 'Built Tough'를 추구하는 포드 픽업 철학에 딱 들어맞는 차다. 디자인과 성능, 실용성과 경제성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 '파워 레인저'다.

WRITER 임유신(evo) 편집장)

자동차 세계는 여행에 비교할 수 있다.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그동안 몰랐던 그곳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자기가 사는 곳의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던 편협한 사고의 폭도 넓어진다. 평생 여행만 하며 지구 곳곳을 다 훑을 수는 없기에 미지의 세계는 항상 남아 있기 마련이다. 미지의 세계는 늘 기대와 상상을 자극한다. 자동차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차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만 500종이 넘는 차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종을 웃돈다. 알아야 할 차도 한둘이 아니고, 모르고 지나가는 우수한 차도 많다.

포드 레인저도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꽤 유명한 차다. 자동차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브랜드인 포드의 자동차임에도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이유는 판매 무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픽업에 대한 관심이 덜하기에 알려진 정보도 많지 않다. 하지만 **레인저가 팔리는 나라에서 그 인기는 대단하다. 픽업의 실용성, 적절한 성능, 알맞은 가격, 강인한 디자인, 높은 인지도 등 끌리는 요소로 가득하다. 캐릭터가 특별한 패션 카는 아니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은근한 매력이 넘친다. 일반인은 물론 마니아들도 두루 사랑하는 차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일이듯, 새로운 차를 알아두는 일도 유익한 경험이다. 레인저도 알아두면 좋은 차다. 다음에 소개하는 여덟 가지 사실만 알아도 레인저라는 차가 달라 보일 것이다.

레인저는 픽업 세계에서 인지도가 높다.

1 역사 및 판매 지역

포드 레인저는 1983년에 처음 선보인 이래 35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1971년부터 1982년까지 팔린 포드 코리어의 후속 모델이고, 포드가 처음 선보인 콤팩트급 SUV였다(코리어는 협력 관계인 마쓰다의 차에 포드 배지를 붙인 모델이다). 초대 레인저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용이었다. 1995년에는 남미로 수출했고, 1998년에는 아르헨티나에 생산 공장을 세웠다. 북미용 모델은 1993년 세대교체가 한 번 이뤄졌으며, 2012년까지 생산했다.

북미와 남미 이외의 지역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마쓰다가 만든 차에 포드 배지를 붙이고 코리어라는 이름을 붙여 팔던 것까지는 북미 모델과 같다. 다른 점이라면, 북미에는 1983년 포드가 개발한 차로 바뀌었지만 그 외 지역은 '같은 차 다른 차종' 전략을 2011년까지 이어갔다. 다만 코리어는 1998년 레인저로 이름이 바뀌었다. 1세대와 2006년에 선보인 2세대는 계속 마쓰다가 개발한 차를 사용했다. 2011년에 나온 3세대에 이르러서야 포드 호주에서 개발을 맡아 본격적인 포드 차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전까지는 콤팩트급이었지만 이때부터 크기를 키워 미드 사이즈급으로 성장했다. 2015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더욱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거듭났다. **현재 레인저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판매되는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특히 밀림과 평야가 많은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다.**

2 파워와 퍼포먼스

레인저는 뒤쪽에 적재함을 갖춘 픽업이다. 운전석과 동승석만 갖춘 레귤러캡과 뒤쪽에 작은 짐칸을 갖춘 슈퍼캡, 2열까지 승객석을 갖춘 더블캡으로 나뉜다. 엔진은 2.2L와 3.2L TDCi 디젤이 있다. 최고출력은 각각 160마력과 200마력이고 최대토크는 39.3kg · m와 48.0kg · m다. 변속기는 6단 수동과 자동으로 나뉜다. 시장에 따라 2.5L 가솔린엔진과 5단 수동변속기도 쓰인다. **굴림 방식은 2WD와 4WD로 구분한다. 깊이 80cm인 강도 건널 수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제원과 성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3.2L 모델의 경우 견인력은 3500kg에 달한다.**

포드는 2019년부터 레인저를 북미 시장에 투입한다.

3 미국 시장에 복귀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판매하면서 정작 미국에서는 팔지 않던 레인저가 미국 시장에 복귀한다. **지난 1월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포드는 레인저 픽업의 복귀를 발표했다. 그 시기는 2019년이다.** 해외 판매 모델과 달리 프런트 스타일을 손보고 엔진도 차별화한다. 생산은 미시건 공장에서 한다. **포드가 레인저를 다시 미국 시장에 내놓는 이유는 소비자의 요구 때문이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고, 가격이 적당한 새로운 픽업을 원하는 요구가 꽤 크기 때문이다.** 포드는 F-시리즈로 미국 시장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픽업 시장이 크기에 레인저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 포드의 입지 또한 견고해진다. 소비자 요구도 만족시키고 시장 기반도 확고히 하는 일석이조 전략이다.

4 스페셜 모델, 비치 패트롤

픽업의 강점은 다양한 활용성이다. 특히 도심과 도로를 벗어난 야외에서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2016년 11월 독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등장한 레인저 구조대 해변 순찰차 쇼카는 픽업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조대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페인팅과 레인저 본연의 역동적 스타일이 어우러져 터프한 면모를 드러낸다.** 포드는 구조대 역할에 걸맞게 특별한 튜닝을 시도했다. 5기통 3.2L 디젤엔진은 200마력의 출력과 48.0kg · m의 강한 토크를 뿜어낸다. 모래 위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B/F 굿리치의 전지형 T/A KO2 타이어를 끼웠다.

레인저 비치 패트롤

험로 주파력이 뛰어난 것도 레인저의 인기 비결 중 하나다.

5 험난한 다카르 랠리 출전

해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터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 어떤 경기는 잘 닦인 도로를 달리지만, 반대로 거친 야외를 달리는 랠리도 있다. 야외를 누비는 랠리 중에서도 다카르 랠리는 험난하기로 유명하다. 별칭이 '죽음의 랠리'라 불릴 정도다. 올해 다카르 랠리는 1월 2일에 열렸다. 지난해에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는데, 올해에는 파라과이를 추가했다. 다카르 랠리는 원래 프랑스에서 출발해 아프리카를 주 무대로 달렸지만,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2009년부터는 남미로 무대를 옮겼다. 올해 랠리는 안데스산맥을 지나는 험난한 코스를 1000km 달렸다. 다카르 랠리는 승용차, SUV, 트럭, 바이크 등 다양한 차종의 317대가 출전해 249대가 완주했다.

포드 레인저는 2014년부터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고 있다. 레인저 레이싱 카는 닐 울리지 모터스포츠와 공동 개발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조한다. 일반 모델과 달리 레이싱 카에는 350마력 5.0 V8 엔진을 얹고 6단 연속 변속기를 쓴다. 레이싱 카에 걸맞게 곳곳을 개조해 험로 주파력을 더욱 키웠다.

6 글로벌 판매 대수 순위

픽업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다. 전 세계 판매량은 2010년 410만 대에서 2015년 570만 대로 늘었다. 2016년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시장의 정체로 574만 대를 기록했다.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시장 규모는 여전히 600만 대에 육박하는 큰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픽업은 포드 F-시리즈로 2016년에 99만 대가 팔렸다. 한 해 판매량이 100만 대에 이르는 대기록이다. 시장점유율도 17.2%나 차지한다.**

레인저는 20만7531대가 팔려 8위를 기록했다. 2016년 18만6868대보다 2만 대가 늘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다. 전 세계 픽업 판매 10대 중 한 대는 레인저라는 뜻이다. 픽업이 인기 있는 북미에서는 팔지 않기에 순수하게 해외에서만 세운 기록이다. 2019년 미국 시장에 다시 팔기 시작하면 전 세계 판매량도 덩달아 올라갈 것임이 분명하다.

7 또 다른 레인저

'레인저(Ranger)'는 유격대나 경찰대, 특수부대 대원 등 뭔가를 감시하거나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처음 레인저란 이름이 처음 쓰인 차는 현재의 레인저 픽업이 아니다. 1950년대 포드의 가지치기 브랜드인 에드셀에서 레인저라는 차를 내놓았다. 지금 레인저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다. **1957년에 처음 선보인 레인저는 풀 사이즈급 세단이었다. 쿠페와 하드톱, 컨버터블도 나왔다. 레인저는 1960년까지만 생산했다. 생산 기간이 짧아 대수도 그리 많지 않기에 수집가들 사이에 인기가 좋다.** 에드셀 모델 이름 중에는 두 개가 나중에 포드 모델 이름으로 다시 쓰였다. 하나는 레인저, 다른 하나는 머큐리 디비전의 미니밴 이름으로 부활한 '빌리저'다.

8 클래식 레인저

레인저는 한때 포드 F-시리즈의 패키지와 트림명으로 쓰였다. 1965년에는 스타일링 패키지로 선보였고, 1970년에는 정식 트림으로 자리 잡았다. 이 트림이 레인저 모델로 독립하지는 않았지만, 픽업에 쓰인 이름이라는 점에서 요즘 모델과 연관성을 지닌다. 최근 들어 과거 F-시리즈 레인저 트림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ABC 방송의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홈 에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디자이너 킴 루이스가 1977년형 F-150 레인저를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블루와 화이트 컬러가 조화를 이룬 이 차를 루이스는 '진주'라고 부른다. 루이스는 F-150 레인저 '진주'를 타고 텍사스 곳곳을 누비고 다녀 텍사스에서 '진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 킴 루이스와 그녀의 F-150 레인저 '진주'

GREAT TOUR

포드 GT가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 GTE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50년 만에 르망에 복귀한 후 거둔 자랑스러운 승리다.
모터스포츠에서 포드의 영광을 드높일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모터스포츠는 열정'이다. 우승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이싱의 주목적은 우승의 영광, 기술 개발, 브랜드 이미지 관리 등이다. 수익도 내고 광고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사업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모터스포츠에 임한다.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잘나가는 브랜드는 모터스포츠에 열심인 경우가 많다. 모터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 · 무형의 효과가 알게 모르게 긍정적 발전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포드도 모터스포츠에 열심인 브랜드 중 하나다. 역사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드 창업자 헨리 포드는 1901년에 또 다른 자동차 제조사 창업자인 알렉산더 윈턴과 1.6km 타원 코스를 10바퀴 도는 레이싱을 벌였다(헨리 포드가 이겼다). **포드는 1930년대 초 신형 V8 엔진을 선보이며 내세운 슬로건이 '도로용 차를 위한 모든 사람의 힘 그리고 레이싱을 위한 모든 사람의 힘'일 정도로 모터스포츠를 중시했다. 20세기 내내 다양한 레이싱에 참가했고, 포드의 기술과 부품은 모터스포츠에 두루 쓰였다. 현재 나스카와 WRC 등 굵직한 세계 대회를 비롯해 10여 개의 크고 작은 레이싱에 참가하고 있다.**

2017 디트로이트 모터쇼 르망 시뮬레이터

GT는 양산 모델이 팔리기 전 레이싱 카로 먼저 데뷔했다.

2017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전시된 GT

"GT 슈퍼카는 결국 태생부터 모터스포츠에 철저히 기반을 둔 슈퍼카라 할 수 있다. GT 레이싱 카는 최고출력 600마력이 넘는 3.5L V6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는다. "

모터스포츠의 왕좌에 오르다

2015년에는 모터스포츠 업계가 놀라운 소식으로 술렁거렸다. 포드가 1월에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내구 레이스 챔피언십(WEC)' 참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레이싱 카는 모터쇼에서 공개한 GT였고, 르망뿐 아니라 IMSA 스포츠카 챔피언십 출전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에 출전한 2016년은 1966년 포드 GT가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1~3위를 석권한 기념비적인 해다(포드는 이후 1969년까지 4년 연속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GT를 앞세운 포드의 내구 레이스 복귀는 치밀하게 이뤄졌다. GT가 출전하는 IMSA와 WEC는 전용 레이싱 카가 참가하는 프로토타입 클래스와 일반 스포츠카를 개조해 내보내는 GT 클래스로 구분한다. GT 레이싱 카가 참가하는 분야는 GT 클래스다. 이 클래스는 양산차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에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가 꽤 크다. 엔진도 양산차 엔진을 손봐서 올릴 수 있기에 기술력을 과시할 기회가 된다. **포드 GT는 양산차를 공식 판매하기 앞서 레이싱 카가 먼저 나왔다. 양산차의 모양이 레이싱 카와 크게 다르지 않고, 레이싱 카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을 정도로 모터스포츠 정신이 짙게 배어 있다. 보통 양산차를 만들고 레이싱 카로 개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GT는 그 반대의 길을 걷는다.** GT 슈퍼카는 결국 태생부터 모터스포츠에 철저히 기반을 둔 슈퍼카라 할 수 있다.

GT 레이싱 카는 최고출력 600마력이 넘는 3.5L V6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는다. **변속기는 7단 듀얼클러치 방식이고 뒷바퀴를 굴린다. 양산차보다 무게를 줄였고, 최고시속은 320km 이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97km 가속은 3초 이내에 끝낸다.** GT 레이싱 카는 2016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IMSA 롤렉스 데이토나 24시간 레이싱에서 데뷔전을 치른 뒤 꾸준히 내구 레이스에 출전하며 실력을 갈고닦았다.

하이라이트는 WEC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르망 24시간이다. 반세기 만의 복귀 무대이기도 한 르망에서 GT는 GTE 프로 클래스에 출전했다. 페라리 488 GTE, 쉐보레 콜벳 C7.R, 포르쉐 911 RSR, 애스턴 마틴 밴티지 등 막강한 차들이 경쟁을 벌였다. 포드 GT는 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나머지 세 대도 3, 4, 9위에 올랐다. 칩 가나시팀의 68번 포드가 1위, 69번과 66번, 67번이 각각 그다음 순위로 이어졌다. 1월에 데뷔전을 치른 뒤 5개월 만의 일이다. 화려한 복귀로 주목을 끌었을 뿐 아니라 페라리와의 경쟁도 화젯거리였다. 50년 전 르망 경기에서도 페라리와의 악연이 참가 동기였고, 6년 연속 우승으로 승승장구하던 페라리를 이기고 우승컵을 차지했기 때문. 반세기가 지난 이번에도 페라리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결국 GT가 우승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실감하는 명승부였다.

2016 르망 24시간 경기에서 우승한 GT

"반세기 만의 복귀와 우승의 재현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포드이기에, GT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시 한번 영광의 순간을 향하여

포드는 올해 르망 24시간 경기에도 참가한다. GT 네 대를 내보내고 브라질 출신 루이스 펠리프 피포 데라니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피포 데라니는 67번 포드 GT팀의 앤디 프리올, 해리 팅크넬과 한 팀을 이뤄 2016년의 영광을 올해에도 재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 밖에도 포드 GT팀은 IMSA 챔피언십 13경기와 WEC 9경기를 소화해낼 예정이다.

올해도 전망은 밝다. 지난 1월에 열린 IMSA 롤렉스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는 조이 핸드, 더크 뮐러, 세바스티앙 부르데로 구성된 포드 GT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4월에 열린 WEC 첫 경기인 실버스톤 6시간 내구 레이스에서는 피포 데라니의 67번 GT팀이 당당히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두 경기의 개막전 모두 우승으로 장식해 GT의 영광을 드높였다. 3월에 열린 IMSA 세브링 12시간 내구 레이스에서는 2, 4, 5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르망 24시간 연속 우승도 점쳐볼 수 있다.

2017년까지 출전하기로 한 포드 GT의 레이싱 참가 계획은 2019년으로 연장됐다. 포드가 모터스포츠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포드 GT 양산 모델은 2년에 걸쳐 해마다 250대씩 500대를 한정 생산할 계획이었다. 아무나 살 수 있지도 않다. 희망자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00명을 선정한다. 이전 GT 소유자거나 포드자동차를 여러 대 산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포드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는 비싼 슈퍼카지만 첫 주에 신청자가 7000명이 몰렸다. 결국 포드는 추가 생산을 결정했고, 생산 일정도 2019년까지로 늦춰졌다. 생산이 연장되면서 포드는 WEC와 IMSA 참가도 연장했다.

GT는 포드 역사에서 의미 깊은 모델이다. 현시대에서는 포드를 대표하는 슈퍼카로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고 포드의 기술력을 만방에 알린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터스포츠에서의 활약이다. 이미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를 얻었지만 굳이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본질과 자동차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반세기 만의 복귀와 우승의 재현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포드이기에, GT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GT의 위대한 여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GT의 모터스포츠 활약으로 GT는 물론 포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GT는 2019년까지 레이싱 참가를 연장했다.

THE 'FORD' OF THE FURIOUS

레이싱을 테마로 한 액션 영화인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는 많은 자동차가 등장한다. 그동안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 대의 포드자동차가 나온다. 영화도 보고 포드자동차도 찾는 재미를 누려보자.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는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일이다.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 마니아에게 큰 재미를 안겨준다. 워낙 다양한 자동차가 나와서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스토리 몰입은 자동차에 눈이 팔려 포기하는 편이 낫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가 무엇인지 알아맞히기 위해 끙끙거리다 영화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극장 문을 나서기도 한다. 한 번만 봐서는 무슨 차인지 파악할 수 없어 몇 번을 반복해 보는 골수 마니아도 있다.

〈분노의 질주〉는 2001년에 처음 개봉했으며, 시리즈로 계속 이어져 2017년 현재 8편까지 선보였다. 8편은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The Fast and the Furious 8)〉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했다. 자동차가 많이 등장하는 영화가 8편까지 나왔으니 자동차 마니아에겐 이보다 좋은 영화도 없을 터.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지만, 동시에 '언제 또 영화 속 차를 다 파악하나…' 한숨이 절로 나온다.

포드자동차도 영화에 종종 등장한다. 1편엔 붉은색 F-150 라이트닝 픽업이 나왔고, 3편에는 1967년형 머스탱, 4편에는 1972년형 그란 토리노 스포츠, 5편에는 G40, 6편에는 1970년형 에스코트 등이 비중 있게 나왔다.

8편에는 희귀한 포드자동차가 특별한 배경에 나온다. 쿠바는 1960년대 이후 2015년까지 할리우드 영화 촬영을 금지했다. 2015년 쿠바가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미국과 쿠바 사이에 국교 정상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은 유니버설픽처스가 미국과 쿠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할리우드 영화로는 처음이다. 쿠바는 통상 금지 때문에 자동차 수입이 금지돼 1960년대에 출시한 차들이 지금도 굴러다닌다. 옛날 차를 고치고 도색해 오래도록 타고 다니는 문화가 정착했다. 영화에서도 오래된 차들이 굴러다니는 쿠바의 독특한 자동차 문화가 배경을 장식한다.

1956년형 포드 커스텀라인 튜더 세단은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는 차 중 하나로 나온다. 커스텀라인은 당시 포드의 중급 라인업으로 위로는 메인라인, 아래로는 크레스트라인 사이에 위치했다. 2도어와 4도어 세단, 2도어 하드톱 쿠페 스타일로 나왔고 뒷바퀴를 굴렸다. 3.7L 가솔린엔진은 137마력의 힘을 냈고, 3단 수동 기어와 조합을 이뤘다. 영화 속에서 드래그 출발 순간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60년 전에 만든 차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다음으로 비중 있게 나오는 차는 크라운 빅토리아 택시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 방탄차를 공격하기 위해 도심의 차를 해킹하고, 수십 대의 차들이 쏟아져 나온다. **경찰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크라운 빅토리아는 포드의 풀 사이즈 세단이다. 1950년대와 1980년대에 잠시 결가지 모델로 나왔다가 1991년 정식 모델로 출시되었다. 이때를 크라운 빅토리아의 시작으로 본다. 큰 차체에 V8 엔진을 얹은 크라운 빅토리아는 미국적인 차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특히 경찰차와 택시로 많이 쓰였다.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 중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온 차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경찰차와 택시의 대부분이 크라운 빅토리아이기 때문이다.**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는 '토이숍' 장면이 나온다. 마약상에게 압수한 차를 모아놓은 곳인데 커다란 창고에 각종 차를 가득 모아놓았다. 이곳에는 **포드 핫로드와 머스탱 쉘비가 잠깐 등장한다. 핫로드는 1930년대 스피드를 즐기던 마니아들이 중고차에 최신 파워트레인을 얹어 개조한 차를 말한다. 포드 모델 T와 모델 B 등을 주로 이용했고, 지금도 미국의 전통적 자동차 문화로 자리 잡아 이어가고 있다. 머스탱 쉘비는 머스탱의 고성능 모델이다. 튜닝 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캐럴 쉘비가 다듬은 모델로 그 인연은 머스탱 초기인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밖에도 영화에는 포드 퓨전이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퓨전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몬데오의 북미용 모델이다. 몬데오가 디젤엔진을 얹은 반면 퓨전은 가솔린이다. 중형 세단으로 멋진 스타일과 넓은 실내, 다양한 안전 · 편의 장비 등 패밀리 세단의 기본기에 충실한 차로 인정받는다. 영화를 보는 목적이 무엇일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오직 여주인공 또는 남주인공을 보기 위해, 스토리가 궁금해서…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몰입하는 부분이 제각각 다를 것이다.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은 자동차가 많이 등장하는 만큼 관심 있는 차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FORD WOMEN

지난 3월 8일에 열린 2017년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Be Bold for Change)'였다. 포드코리아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재 4인 4색의 이야기를 전한다.

EDITOR 김민정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5000여 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에서 시작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유엔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해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동참하고 있다. 2017년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Be Bold for Change)'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여성이란 일상생활에서 용기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성별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말한다.

포드코리아는 성별에 제약 없이 다양한 전문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편견 없이 직원들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을 점검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와 성장 원동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 일환으로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자동차 업계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포드코리아 내 각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여성 4인의 일과 삶을 소개한다.

*포드코리아 4인의 여성 전문 인재가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는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fordkorea)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세밀함과 꼼꼼함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다

포드코리아의 부품 보증 담당자로서 차량을 확인하고 정비와 수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원래는 테크니션으로 근무했지만, 보증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자동차 정비를 담당하기에 고객으로부터 고장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받고 그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곤 한다. 특히 수리 부분은 비용과 연결되기에 차량 관리와 보증 가능 영역 및 대상 등을 함께 전하면 고객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업무 영역을 넓힌 것이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남성 인력이 많지만, 여성의 세밀함과 꼼꼼함이 차량의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보증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포드는 성별이 아닌 동등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점검하고, 직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여성 후배들을 위해 긍정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

– 포드코리아 강북 서비스센터 보증 담당 **오해수** 사원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가 두렵지 않다

학창 시절부터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거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즐겼다. 특히 자동차를 좋아해 세일즈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동차와 함께해서인지 19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듯하다. 빠르게 지나간 속도만큼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 더'를 외치곤 했다. **긍정적 마인드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었고, 더 적극적으로 뛰면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려 노력했다. 이런 마음가짐과 노하우가 고객에게 잘 전달되어 2015년과 2016년 연속 딜러사 판매왕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자동차는 스피드와 파워 등 남성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주행의 묘미처럼 상반된 매력이 있다. 자기만의 방식과 브랜드의 이야기를 잘 조화시키면 더욱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도 언젠가 멋지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 포드코리아 마포전시장 영업 담당 **김주연** 과장

유연한 대처가 미래의 가능성을 만든다

포드코리아 인사팀에서 포드 인재 관리 및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바뀐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포드가 원하는 미래의 가능성은 변화에 도전하고 내일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유연한 자세의 인재로부터 시작된다. 포드자동차는 국가별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원활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은 결국 내 행복이 주는 여유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여유라는 것이 시간이나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일과 삶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힘겨운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가족을 통해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 아이가 셋인 워킹맘이라 곤란할 때도 많지만,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다.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더 많이 생각해줄 때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이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 포드코리아 인사 담당 **김채연** 부장

소통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2001년 수입차 영업을 시작해 16년간 업무에 만족하는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점 때문이다. 고객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좋아하는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에 자동차 영업은 내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자동차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해주기도 하고 힘들고 지칠 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포드는 미국차가 지닌 첨단 기술력과 문화가 라인업을 비롯한 브랜드에 잘 녹아 있다. 이러한 포드의 매력을 국내 고객에게 전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영업 업무를 택했다.** 영업팀의 헤드가 되면 매번 신차가 나오거나 이슈가 생길 때마다 트레이너 교육 프로그램(Train–The–Trainer)을 통해 본사의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러한 전문 교육이 성별의 제한 없이 영업뿐 아니라 전문 트레이너로도 손색없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포드코리아 대치전시장 영업 담당 **최자은** 차장

익스플로러와 함께한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

INFINITE POSSIBILITIES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강인한 마스크가 매력적인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익스플로러의 새 모델로 선정됐다. 변화와 새로움으로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2017 익스플로러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하는 광고 촬영 현장에서 그를 만났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김권석

유채꽃과 벚꽃이 만발한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익스플로러 광고 촬영이 진행됐다. 광고의 메인 모델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갱단 두목 '아구스' 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다. 매서운 듯하면서 부드럽고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는 그와, 험난한 지형은 물론 잘 닦인 도심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익스플로러가 왠지 닮아 보였다.

이른 아침, 큐 사인과 함께 광고 촬영이 시작됐다. 익스플로러를 타고 제주의 강한 바람에 맞서며 내달리던 그가 차창을 내리더니 "와우, 진짜 최고예요. 멋져요!"라며 스태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이번 광고에서 그의 역할은 익스플로러 오너 아빠다. 아빠의 자상함만을 상징하는 여느 광고와 달리 스타일리시하면서 매력적인 아빠로, 아빠도 멋진 남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제주도의 멋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엄마와 아빠, 아들과 딸이 익스플로러를 타고 해안도로와 험한 오프로드를 거침없이 질주하며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이 탑재된 익스플로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날카로우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섹시한 악역으로 각인됐지만, 익스플로러 광고에서는 아빠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그를 만날 수 있다. 매력 넘치는 데이비드 맥기니스와 2017 익스플로러의 탁월한 기능이 조화를 이룬 이번 광고는 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평소 포드자동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포드 하면 어린 시절 미국에서 본, 진흙길에서 으르렁거리며 무거운 장비를 이끄는 트럭 광고가 생각난다. 그 광고 슬로건이 'Built Ford Tough'로 인상 깊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포드의 최고 모델로 손꼽히는 익스플로러 광고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Q. 촬영지인 제주도에 대한 느낌은?

A. 제주도에 처음 왔는데,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너무도 아름답다. 한적한 시골 같은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나 열대 섬인 하와이에서 자랐는데, 제주도는 그 두 곳을 합친 듯한 분위기다.

Q. 익스플로러 시승 소감을 듣고 싶다.

A. 익스플로러의 첫인상은 단단함이다. 처음 액셀러레이터를 지그시 밟으니 부드럽고 빠르게 그 힘이 전해졌다. 속도를 높이자 흔들림 없이 묵직하면서 안정감 있게 달렸다.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의 대시보드와 실내 공간에도 마음을 빼앗겼다. 촬영 도중 짬이 났을 때 디스플레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스케줄을 표시해봤는데, 너무 빠르고 간단해서 놀랐다.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흥미로웠다. 특히 모바일과 연동되는 싱크3의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에 감동했다.

Q. 이번 익스플로러 광고 촬영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A. 촬영의 중심은 당연히 익스플로러다. 다이내믹한 익스플로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스태프가 모여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다. 2017 익스플로러의 첨단 기능과 지능적 기술, 간결한 실내 공간 그리고 SUV의 장점을 살린 강력한 오프로드 기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Q. 익스플로러와 함께 달리고 싶은 곳은?

A.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캠핑을 다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낚시를 하곤 했다. 익스플로러를 타고 서울에서 동쪽으로 달려 어느 산꼭대기에 올라 며칠 동안 캠핑을 하고 싶다. 진흙투성이 산속을 달리며 익스플로러의 각종 주행과 안전 시스템의 진가를 경험하고 그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다.

Q. 최근 〈오퍼레이션 울프〉라는 제목의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들었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A. 〈오퍼레이션 울프〉는 멸종 위기에 처한 늑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인간이 서식지로부터 몰아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영화다. 현재 제작 후반 작업인 편집을 하고 있다.

Q. 꼭 한 번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지.

A.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미국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 같은 탐정 스릴러 속 캐릭터를 맡아 연기해보고 싶다.

Q. 만약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A. 자동차는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 하나다. 아마도 디자인 학교를 졸업한 뒤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이뤘을지도 모르겠다.

Q. 앞으로 계획은?

A. 연기 활동 외에 한국어 공부와 35mm 카메라로 사진 찍는 연습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퇴직 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모든 설계와 디자인을 직접 한 친환경 집을 지어 어머니께 선물하는 것이 다음 프로젝트다.

자동차 경주를 위해 탄생한 레이싱 워치.
빠른 속도를 즐기는 드라이버를 위한 감각적인 레이싱 워치를 소개한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심주호 **RETOUCHER** 김권석
COOPERATION CHOPARD(02-6905-3390), TAG HEUER(02-776-9018), OMEGA(02-511-5797)

NEED FOR SPEED

'스피드마스터 레이싱'은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컬러풀한 다이얼과 타키미터 스케일, 강력한 코액시얼 칼리버 3330으로 구동하며, 모터스포츠의 뜨거운 에너지와 속도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다이얼에는 날짜 표시 창,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 30분 카운터 및 12시간 카운터가 장착되어 있다. 블랙 컬러의 모든 서브 다이얼에는 클루 드 파리 패턴을 새겨 멋스러움을 더했다. 모두 **오메가**

왼쪽부터_빈티지 자동차의 대시보드에서 영감을 얻은 블랙 다이얼과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자동차 엔진과도 같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밀레 밀리아 크로노그래프'는 스포티한 매력을 품고 있다.
'밀레 밀리아 GTS 크로노' 레이싱 트랙을 손목 위로 옮긴 듯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다이얼의 6시 방향에는 아워 카운터,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 12시 방향에는 미닛 카운터가 위치한다.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러버 밴드가 눈길을 끈다. 모두 **쇼파드**

왼쪽부터_'모나코 크로노그래프'의 샤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 다이얼과 백케이스는 칼리버 12 무브먼트의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시와 9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와 클래식한 악어가죽 스트랩까지, 모나코 라인만의 아이덴티티와 디자인을 고스란히 담았다.
스켈레톤 다이얼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돋보이는 '까레라 칼리버 호이어 01'은 블랙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 더욱 스타일리시하다. 지름 45mm의 케이스는 12가지 부품을 이용한 모듈 공법으로 만들었으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모두 **태그호이어**

물 위를 내달리는 질주 본능

JET SKI

시동을 건다. 수면 위를 탁! 탁! 반동이 그대로 전해온다.
어느 정도 달리자 제법 파도가 거칠다. 어금니를 꽉 물고 속도를 올린다.
파도를 뚫는다. 파바박! 물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때린다.

EDITOR 김은성

하늘을 나는 듯한 속도감

제트스키는 동체 바닥에서 물을 빨아들여 압축한 다음 세게 분출하는 추진력으로 수면 위를 질주하는 모터사이클이다. 모터보트가 스크루를 사용해 어느 정도 수심이 확보되어야 안전한 반면, 제트스키는 수심이 30cm만 넘어도 이동이 가능해 기동력이 좋다. 조작법이 간단해 비교적 안전하기에 수상 레포츠 초보라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 제트스키가 처음 발명된 곳은 일본으로 1972년 모터사이클 회사인 '가와사키'가 세상에 내놓아 1980년대 초부터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강상축제'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제트스키의 구조는 스스로 무게중심을 잡고 물 위에 떠 있게끔 만들어졌다. 때문에 타는 사람이 물에 빠진다 해도 제트스키 스스로 회전하므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안전하다. 오른쪽 손잡이를 이용해 속도와 전후 방향을 조종할 수 있으며, 작동법이 복잡하지 않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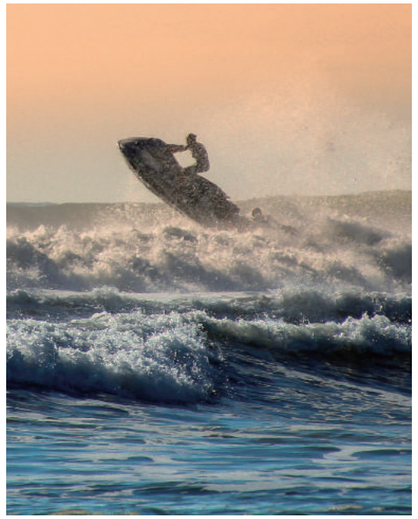
제트스키 타는 법 A to Z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얕보는 건 금물이다. 체력 소모가 많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는 '출발하기, 직선으로 타기, 조정하기, 균형 잡기'로 그 후 앉아서 타는 법과 서서 타는 법을 배운다. 어느 정도 조종에 익숙해지면 점프와 방향 바꾸기, 물속 장항의 고난도 기술에 도전할 수 있으며, 몸체의 뒷부분에 수상스키, 워터슬레이 등을 연결해 즐길 수 있다. 제트스키의 종류는 다양하다. 혼자 타는 것과 2인 이상 타는 것, 제품에 따라 민첩성, 속도, 후진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는데 목적과 자신의 체중을 고려해 알맞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1인승은 스릴과 속도감을 중요시하는 경우, 2인승은 안전성이 중요하거나 연인과 부부가 함께 탑승할 때 고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손잡이. 손잡이의 액셀러레이터(액셀) 레버를 당기면 속력이 증가하며 핸들을 좌우로 꺾어 방향을 전환한다.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오른쪽 아래에 기어가 있어 단계별로 조종할 수 있다. 평소에는 '전진' 상태, 조금 당기면 '중립'이며 끝까지 당기면 '후진'이다. 전진 상태에서 액셀 레버를 살짝 당기면 속도가 나고 별도의 브레이크는 없다. 액셀 레버를 놓으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멈춘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속도감

제트스키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90km지만, 실제 체감 속도는 200km에 다다른다. 어마어마한 속도감에 발생하는 물보라와 굉음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준다. 주기적으로 제트스키를 탈 계획이라면 정식 면허가 필요하다. 엔진이 달린 5마력 이상의 선박을 운전 및 조종할 경우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레저 기구를 타고 즐기기만 할 경우에는 2급을, 사업까지 운영하고 싶다면 1급이 필요하다. 면허는 운전면허와 같이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지며, 실기의 경우 22개 조종 면허장에서 치를 수 있다. 면허에 대한 정보는 국민안전처 수상레저 종합 정보 사이트(https://imsm.mpss.go.kr)를 참고하자.



tip

안전 수칙

작동법이 쉽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일본 나고야시의 통계 결과 제트스키 안전사고가 일반 선박 사고의 3.5배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고무보트와의 충돌이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안전 장비는 필수 구명조끼와 전용 슈트, 전용 장갑을 착용한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시야 확보를 위해 고글을 쓴다.

2 탑승 전후 임펠러 점검 임펠러는 추진력을 내는 장치이자 이물질이 쉽게 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점검한다.

3 주행 시 안전 팔찌 착용하기 시동을 거는 부분에 연결된 안전 팔찌는 제트스키와 주행자를 연결한다. 팔찌가 제트스키와 분리될 경우 제트스키의 시동은 곧바로 꺼진다. 주행자가 물에 빠져도 제트스키 홀로 멀리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4 안전 자세 유지하기 양쪽 허벅지는 가능한 한 제트스키에 밀착한다. 항상 핸들의 중앙 부분과 가슴 가운데가 일직선이 되게 일치시켜야 요동이 적고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

5 제트스키가 기우는 대로 움직이기 좌회전 혹은 우회전할 경우, 몸은 제트스키가 기우는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 무게중심을 맞춘답시고 반대로 기울이면 방향 전환이 되지 않는다. 방향을 바꿀 때는 과감하게 핸들을 틀 것

6 충돌 위험 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기 운행 중 다른 제트스키나 이동 물체가 발견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 다른 이용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제트스키 베스트 포인트

1 경기 청평 북한강을 막아 생겨난 인공 호수인 청평호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수상 레포츠 성지다. 높고 낮은 산과 호쾌한 호수가 한눈에 담기는 청량한 곳이다.

2 강원 낙산해수욕장 관동 팔경 중 하나.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안전하다. 작은 어선이 모여 있는 항구에서 어촌의 풍치를 느낄 수 있으며, 장엄한 낙산의 해돋이가 일품이다.

3 서울 여의나루 도심 한복판에서의 여유. 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 사이를 시원하게 가르며 일탈을 느낄 수 있다.

4 경남 통영 소매물도, 비진도, 연화도 등 아름다운 섬이 있는 항구도시.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 물의 흐름이 잔잔하다.

5 부산 광안리 도시와 강이 어우러진 부산.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둘레길을 지나는 코스가 가장 좋다.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 사이로 비치는 둘레길 코스의 풍경이 아름답다.

FORD NEWS

EDITOR 김민정

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Grants

FORD DRIVING SKILLS FOR LIFE

FORD VOLUNTEER CORPS
Global Month of Caring
Ford Go Further

포드코리아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 전개

포드자동차 창립자인 헨리 포드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자 1936년 포드 재단을 설립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한 과학, 교육, 자선사업 기금을 지원하고자 설립한 재단은 헨리 포드 2세로 넘어가며 국제적인 기부 사업을 본격 전개했다. 재단의 후원을 주축으로 포드자동차는 민주주의 가치 보존, 인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포드만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있다.

포드코리아 역시 국내에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은 2002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았다. 2016년까지 15년간 100여 개의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해온 포드코리아의 환경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후원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드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진행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SFL; Driving Skill For Life)'는 2003년 포드에서 펼친 글로벌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DSFL은 올바른 운전 교육을 통해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 운전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드는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및 각계의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출범시킨 이후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까지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며 국가별로 공익성과 전문성이 입증된 기관, NGO 및 안전 전문가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또 포드자동차는 2005년부터 9월을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Global Month of Caring)'로 선정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드코리아 역시 임직원과 공식 딜러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국내에서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기 위한 '**위시 베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포드의 사회 공헌 활동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포드 환경 프로그램', 'DSFL',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 프로그램 모두 2017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다. 특히 포드코리아는 최근 사회 공헌 활동 확대와 함께 2년 연속 누적 판매량 1만 대 돌파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며 사회 공헌 활동의 선순환을 보여준 바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뉴 쿠가 미디어 시승회 실시

포드코리아는 국내시장에 출시한 '2017 뉴 쿠가'의 미디어 시승회를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진행했다. 2017 뉴 쿠가는 유럽에서 2008년 쿠가 1세대를 선보인 이후 30만 대를 넘어서는 등 베스트셀링 카 반열에 올라선 모델이다. 미국 포드 특유의 실용성에 디젤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는 포드 유럽의 기술력이 합쳐진 '다이내믹 스마트 SUV'로 아웃도어 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페이스북 팬 대상으로 이색 이벤트 진행

포드코리아는 페이스북 팬 및 고객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미있고 이색적인 콘텐츠로 인기몰이 중인 봉봉(Vonvon)과 협업,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운전 스타일 심리를 분석해주는 이색 행사를 펼쳤다.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 운전 스타일을 알아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벤트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 자동차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이 지난 4월 12일에 개봉했다. 이 영화에 포드의 클래식 카 '커스텀라인 튜더 세단(Ford Customline Tudor Sedan)'이 나오는데, 포드 팬이라면 더욱더 놓칠 수 없는 영화다. 포드코리아 페이스북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포드 클래식 카 이름을 알아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이 뜨거웠다. 정답을 맞힌 당첨자 15명에게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영화 관람권 1인 2매를 증정했다. 이 밖에도 포드코리아 페이스북에서는 재미있고 이색적이며 다양한 SNS 이벤트를 계속 진행한다. 새로운 포드 소식을 가장 빨리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벤트에 참여해 선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fordkorea/)을 방문해보자.

포드 전주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오픈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지난 4월, 전주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해 본격적인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 확장 이전한 포드 전주 서비스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120㎡의 규모로, 1일 최대 40대 이상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특히 사고 차량 수리 시설을 신규 증설해 고객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 방문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사고 수리 전문 어드바이저 및 서비스 전담 어드바이저가 상시 대기하며, 포드코리아의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술 교육을 이수한 전문 테크니션과 사고 수리 전문 테크니션이 체계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비 및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객 라운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 서비스센터는 차량 정비와 수리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전주 지역은 물론 인근 익산과 군산 지역의 고객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67 **문의** 063-252-5400

포드 울산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오픈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가 울산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포드 울산 서비스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231㎡의 규모로, 총 네 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1일 최대 30대 이상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또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실, 고객 라운지 등을 마련해 방문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 포드코리아의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술 교육을 모두 이수한 다섯 명의 전문 테크니션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0번길 7 **문의** 052-258-8004

FORD LINEUP

*제원은 2017년 4월 기준

MONDEO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TDCi 디젤엔진	2.0L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고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870X1,850X1,490	4,870X1,850X1,490
공차 중량(kg)	1,678	1,678
복합 연비(km/L)	15.6(2등급)	15.6(2등급)
도심 연비(km/L)	14.2	14.2
고속도로 연비(km/L)	17.5	17.5
CO_2(g/km)	121	121

MUSTANG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EcoBoost® Premium	5.0 GT Premium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4,951
최고출력(ps/rpm)	314/5,500(Coupe, Convertible)	422/6,500(Coupe, Convertible)
최대토크(kg · m/rpm)	44.3/3,000(Coupe, Convertible)	54.1/4,250(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전장X전폭X전고(mm)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공차 중량(kg)	1,680(Coupe), 1,725(Convertible)	1,750(Coupe), 1,795(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1(5등급)	7.3(5등급)
도심 연비(km/L)	7.7	6.1
고속도로 연비(km/L)	11.6	9.7
CO_2(g/km)	185	232

TAURUS

(신연비 방정식 적용)

	2.0L EcoBoost® SEL/Limited	3.5L EcoBoost® V6(SHO)
엔진 형식	2.0L 에코부스트 I-4 엔진	3.5L 에코부스트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최고출력(ps/rpm)	243/5,500	370/5,500
최대토크(kg · m/rpm)	37.3/3,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5,155X1,935X1,545	5,155X1,935X1,545
공차 중량(kg)	1,890	2,020
복합 연비(km/L)	9.8(4등급)	7.9(5등급)
도심 연비(km/L)	8.5	6.7
고속도로 연비(km/L)	12.0	10.0
CO_2(g/km)	174	219

NEW KUGA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고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25X1,840X1,690	4,525X1,840X1,690
공차 중량(kg)	1,850	1,850
복합 연비(km/L)	12.4(3등급)	12.4(3등급)
도심 연비(km/L)	11.3	11.3
고속도로 연비(km/L)	14.1	14.1
CO_2(g/km)	154	154

EXPLORER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L Limited	3.5L Limited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3,496
최고출력(ps/rpm)	274/5,500	294/6,500
최대토크(kg · m/rpm)	41.5/2,500	35.3/4,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4WD	인텔리전트 4WD
승차 정원(명)	7	7
전장X전폭X전고(mm)	5,040X1,995X1,775	5,040X1,995X1,775
공차 중량(kg)	2,195	2,240
복합 연비(km/L)	7.9(5등급)	7.6(5등급)
도심 연비(km/L)	6.8	6.6
고속도로 연비(km/L)	9.8	9.4
CO_2(g/km)	215	227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2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퀵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2017년 4월 기준

SHOWROOM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1층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영광빌딩 1층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경기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832-0001
충청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청주 전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7-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4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큐빌딩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15	064-759-9888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4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위뫼로 18길 5	02-2057-81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01-2888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4	031-8030-1000
인천	인천 간석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417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585-5484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청주 서비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8-0007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32	051-715-2000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0번길 7	052-258-8004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67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221-10	033-762-0041
	강릉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경로 2255번길 31	033-901-2004
제주	제주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7	064-759-1472

THULE SWEDEN

›Thule Subterra

툴레 백화점
경기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577

툴레 스토어
경기 고양 엑시드상사 031-972-6168 | 경기 구리 블루마리나 031-568-4051 | 경기 남양주 대양마린 031-577-0855 | 경기 분당 오토팩토리 031-706-2329 | 대구 로얄 모터스 053-254-5774 | 대전 아트원 C&C 042-484-7756 | 부산 합동쇼바 051-803-8267 | 서울 영등포 마린뱅크 02-2672-0795 | 인천 카프로라인 032-423-9905 | 광주 Di outdoor-하남본점 062-954-3578

툴레 파트너
경기 부천 피트인 032-508-9083 | 경기 의정부 나누크 031-872-7527 | 경기 평택 삼원레져 031-654-3153 | 경기 용인 절약캠핑 070-7867-9242 | 대구 캠핑리버 053-314-2030 | 서울 강남 카렉스 02-508-8811 | 서울 서대문 케리어스 02-3144-2576 | 서울 성동 렉스토어 02-2299-1274 | 경남 김해 스콜 055-314-7980 | 경남 김해 카투유 055-333-0617 | 부산 독특닷컴 1544-3526

툴레 딜러
경기 분당 야베스 031-719-2565 | 경기 수원 K트레일러 031-271-2800 | 경기 시흥 본레져코리아 031-432-6006 | 대전 아트원 042-484-7773 | 경북 포항 준오토 054-611-6260 | 울산 슈퍼덴트칼라 052-288-7282 | 전북 전주 캠핑창고 063-715-3333 | 광주 BK모터스 1661-3588 | 서울 강남 아트원 02-575-0633 | 서울 노원 피터렉 02-949-3600 | 서울 동대문 한성카포렉스 02-2244-5219 | 경남 김해 로드카페외동점 055-329-2588

* 더 많은 THULE 매장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가까운 매장 찾기(www.tlkor.com)

NANUX NETWORKS INC. |주| 나눅스네트웍스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 B동 2502호 TEL: 1644-2022 FAX : 02-861-8019 thule@nanux.net www.tlkor.com

온/오프로드 모두 다이얼 하나로 간편하게
지형관리시스템 [TMS]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3열 오토 폴딩 시트

5년/10만KM 무상보증
3년/6만KM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서비스 (ESP)

FORD SUV EVENT

GO! DO! Camp

FORD SUV와 함께 하는 캠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드코리아 페이스북 (facebook.com/fordkorea)에서 확인하세요.

송파	02)6928-3000	방배	02)6929-30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일산	031)913-2200	분당	031)714-2004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청주	043)287-0007	광주	062)515-1010
전주	063)273-0005	부산해운대	051)741-5114	부산수영	051)758-0075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Ford

Go Further

ford-korea.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포드 EXPLORER 2.3L AWD : 배기량(cc) 2,261 공차중량(kg) 2,195 자동6단 복합연비(km/l) 7.9 도심연비(km/l) 6.8 고속도로연비(km/l) 9.8 5등급 복합 CO_2 배출량(g/km) 215 ▶ **포드 EXPLORER 3.5L AWD :** 배기량(cc) 3,496 공차중량(kg) 2,240 자동6단 복합연비(km/l) 7.6 도심연비(km/l) 6.6 고속도로연비(km/l) 9.4 5등급 복합 CO_2 배출량(g/km) 227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상에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포드 고객센터 1600-6003 infokr1@ford.com 긴급출동서비스 080-300-3673